

포커스 e-기업

렌즈와 프리즘 가공으로 시작, 각종 비구면 생산과 대형물 가공업체로 변모

| 창립 30주년 맞아 서울광학산업주식회사 |



▶이지웅 대표

지난 5월 21일 충북음성에 위치한 서울광학 산업(대표·이지웅) 앞마당에서는 조출한 잔치가 벌어졌다.

'창업 30주년 우리의 꿈과 의지의 몽칩~5大洋 6大洲를 우리의 빛으로 밝히리라!~서울 光學産業은 無限力進한다' 라는 플래카드 문구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올해로 창업 30주년을 맞이한 서울광학산업이 창업초기부터 회사와 인연을 맺었던 예전 직원들을 초청, 화려하지는 않지만 자축의 자리를 마련했다. 백설기 떡으로 기념 케익을 대신하고 푸르른 초목과 어우러진 야외에서 바베큐 파티를 벌이며 기쁨을 함께 나누는 이 자리는 지난 30년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광학산업 30년사'의 발간 기념을 겸하여 더욱 의미가 있었다.

이지웅 사장은 "창업의 흥분 속에서 밤을 지새우며 동봉서주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니 꿈만 같다"고 말하고 "앞으로 세계 속의 광학산업사로서 확고하게 자리매김할 것을 전 사원과 함께 뜻을 굳히고 의료, 군사, 통신, 우주용 등은 물론 문화의 척도를 따라 움직이는 각종 디스플레이용 등 인류의 무한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사명감을 가지고 광학산업전선의 첨병이 되어 끝없는 도전으로 영생의 대로를 힘차게 달리는 뜻을 담아 '30년사'를 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67년 이지웅 사장이 언론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동경대학에 유학중일 때 만난 노리다 도시오(노리다광학 사장)씨와의 인연을 시작으로 설립된 서울광학산업은 1974년 1월 8일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에 설립되었다. 노리다광학에서는 중견기술자 5명을 5년 동안이나 서울광학산업에 상주시켜서 기술을 전수했고, 노리다광학에서 쉬고 있는 가공기계는 모두 무상으로 서울광학산업에 제공했다. 이를 통해 서울광학산업은 처음부터 노리다 광학 책임아래 미국의 저명한 광학회사인 Leupold

렌즈와 프리즘을 가공하기 시작하여 군사목적과 각종 조준용의 고난도 기술을 익혀갔다.

이후 1987년 안양에서 충북 음성으로 공장을 신축 이전하며 새로운 도약의 시대를 열었다. 현대적인 최신 가공시설과 첨단 장비들을 도입하면서 각종 비구면 생산과 대형물 가공으로 면모를 바꾸어 간 것. 서울광학산업은 브라운관 제조장비에 소요되는 Correction렌즈와 Filter류를 수입 대체화했고, 대구경 우주 연구용 렌즈를 경량화시키기도 했으며, 높이 150mm Fusdsilica Prism과 Penta Prism을 비롯한 다양한 Prism류를 생산했다. 이밖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인 군용 야시경 생산에도 광학부분을 담당했고, 각종 노광장비용 초대형 반사경과 Elliptical Lens, Flys Eys Lens 등의 생산에도 주력하는 한편, 고난도의 코팅에도 도전하면서 광학세계 흐름에 발맞춰 나가고 있다. 지식 및 기술장벽을 어떻게든 극복해 나가고자 노력해온 이지웅 사장이 지금껏 회사를 운영해 오면서 신경을 썼던 부분은 바로 '교육'이다. 직원들 교육은 물론이거니와 5년 전부터는 광학전공의 박사과정을 밟는 사람 중에 전국에서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해마다 한명씩 뽑아 장학금의 혜택을 주는 장학사업을 펼쳐나가고 있다.



▶창업 30주년을 기념하며 이지웅 대표(사진 가운데)와 역대 회사 직원들이 함께 지속하며 떡을 자르고 있는 광경.